

역대 최고 중소기업 수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소기업 수출 4대 혁신 전략」 발표

- 기업·품목·국가·정책 4대 분야 혁신으로 中企 수출의 구조적 성장 촉진
- ‘글로벌 스케일업 500’, ‘수출 ON 2000’ 등 성장단계별 지원 강화
- 소비재 성공모델 확산, K-Tech 전략품목 육성 및 신흥시장 개척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9월 3일(목) 국무총리 주재 제13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중소기업 수출 4대 혁신 전략」을 논의하였다.

중소기업 수출은 '26년 상반기 기준 640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K-뷰티·온라인 수출 등 새로운 성장동력이 부상하여 우리나라 수출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현재의 중소기업 수출 호조세가 단기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보다 탄탄한 성장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유망기업의 수출 고속성장과 수출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소비재·산업재 등 수출유망품목을 발굴·지원하며, ▲정상외교 성과에 기반하여 신흥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기업 관점에서 수출지원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기업·품목·국가·정책 4대 분야의 수출지원 방식을 개편하는 「중소기업 수출 4대 혁신 전략」을 마련·발표하였다.

Ⅰ 수출 진입·성장경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글로벌 스케일업 500’을 통해 수출 유망기업의 다년도 집중 성장을 지원한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 500개사 대상으로 수출로드맵 수립을 돕고, 이에 기반한 다년·목숨 지원으로 기업의 고속성장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수출바우처 내 원부자재 소싱 메뉴판 추가, 현지진출 전문기관 발굴 등 마케팅 중심에서 공급망까지 글로벌화 정책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부처 간 정책 연계도 강화한다.

‘수출 ON 2000’을 통해 다양한 혁신주체의 수출기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수출에 도전하는 청년창업가, 소상공인, 지역기업, 수출채도전 기업 2,000개에 대해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청년창업가에게는 수출경험 제공, 수출준비 등 글로벌화 준비 단계에 따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한다. 차별화된 제품·브랜드를 보유한 소상공인, 지역 주력산업 영위 중소기업, 수출 채도전 기업 등에 대해서도 대상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운영하여 수출기업화 및 온라인 플랫폼 활용, 해외공동진출, 실패원인 진단 및 수출 채도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Ⅱ 소비재 성공모델 확산과 산업재 전략품목 육성

소비재의 경우, 패션·푸드·뷰티 디바이스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차세대 ‘K-브랜드 전략품목’으로 발굴·육성하고, 유통·미디어 앵커기업 등이 보유한 유통망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마케팅 다각화 등을 지원한다. 소비재 수출에 필요한 물류·지식재산·인증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재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연관산업의 품목별 특화지원, 제조·금융·브랜딩 지원도 강화한다.

산업재·테크 분야는 해외 산업정책, 공급망 및 기술 변화 등을 고려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K-Tech 전략품목’을 발굴하여, 국내 및 글로벌 대기업 등과 협업을 통한 현지 실증(PoC), 기술·제품 고도화 등을 맞춤 지원한다. 산업재·테크 수출 수요 발굴을 위한 해외전시회 참여부터 수출계약 이행을 위한 자금·컨설팅까지 실질적인 성과 창출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Ⅲ 정상외교 성과 기반 신흥시장 개척 지원

정상외교 등을 통해 마련된 국가 간 협력 채널을 중소기업의 진출 기회로 전환한다. 인도에 해외진출 종합거점을 구축하여 거점·전시·창고공간을 제공하고 현지 기관·벤처캐피탈(VC)·대학 등과 연계해 제조·실증·투자·인력 등을 복합 지원한다. 브라질에는 K-뷰티 온·오프라인 진출을 확대하고 현지 규제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추진한다.

싱가포르에는 창업특화거점을 구축하고 글로벌 벤처펀드(K-VCC)를 조성한다. 유럽에는 K-브랜드 상설 팝업스토어를 신설하고 몽골에서는 현지 편의점 네트워크 등 유통 인프라를 활용하여 국가별로 특화 시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한다

4 기업 관점에서 글로벌화 지원체계 통합·고도화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정책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 통합공고와 신청서류 간소화,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바이어·지원사업 맞춤 추천 등을 추진한다. 글로벌 환경 급변에 대응하기 위한 ‘상시어로 신고센터’를 구축하고 현안 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업도 강화한다. 또한 수입·서비스수출 분석·발표 등 데이터 정책 기반을 고도화하는 한편, 정책 추진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중소기업 해외진출 촉진법」 제정도 추진한다. 해외 중소·벤처기업 지원거점도 기업 수요와 시장특성에 맞게 고도화할 계획이며, ‘APEC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등 글로벌 네트워크와의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최근 중소기업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을 이어 나가고 있지만,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성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수출 저변과 성장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소기업 4대 혁신 전략을 조속히 기업 현장에 안착시켜 중소기업 수출이 기존 국정과제 목표였던 1,500억 달러를 넘어, ’30년까지 1,800억 달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책임자	과 장	신재경	(044-204-7500)
		담당자	사무관	최영훈	(044-204-7502)
			사무관	김영철	(044-204-7505)
			사무관	서호경	(044-204-7463)
			사무관	정지수	(044-204-7516)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정책조정총괄과	책임자	과 장	정일	(044-215-4530)
		담당자	사무관	김근호	(044-215-4514)

담당 부서	산업통상부 무역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한철	(044-203-4020)
		담당자	사무관	최우진	(044-203-4023)
담당 부서	산업통상부 무역진흥과	책임자	과 장	김열규	(044-203-4030)
		담당자	서기관	김수정	(044-203-4017)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한류지원협력과	책임자	과 장	김현목	(044-203-3331)
		담당자	사무관	이가진	(044-203-3332)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	책임자	과 장	김정락	(044-201-2171)
		담당자	사무관	최미루	(044-201-2174)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	책임자	과 장	김유라	(044-202-2940)
		담당자	사무관	김소연	(044-202-2945)
담당 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	책임자	과 장	신인수	(043-719-1351)
		담당자	연구관	김방현	(043-719-1356)
담당 부서	지식재산처 상표분쟁대응과	책임자	과 장	정일남	(042-481-1502)
		담당자	사무관	오세진	(042-481-5999)
담당 부서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책임자	과 장	류승하	(042-481-7840)
		담당자	사무관	이현성	(042-481-7832)

